

# 한국 현대주택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 1990년 이후 건축가가 설계한 주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aditionality in Modern Korean Houses of the 1990's Designed by Architects

류호정\* / Ryu, Ho-Jeong

박영순\*\* / Park, Young-So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into types of traditionality reflected in modern Korean houses in 1990's designed by architect. Modern Korean houses were divided into five types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Analysis is categorized into three parts, space-pl structural elements, ornamental elements.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were defined as 'Indicative expression of the traditionality', 'Decorative expression of the traditionality', 'Eclectic expression of the traditionality', 'Contemporary expression of the traditionality', 'Abstract expression of the traditionality'.

The results showed that 'Contemporary or Abstract expression of traditionality(type IV and V) were major types of modern Korean houses expressed traditionality. This reveals that in order to apply traditionality to the modern houses, simplified and abstracted for were preferred comparing with the direct imitation of traditional forms.

**키워드** : 전통성, 공간구성방법, 의장적 특성, 구조적 요소, 장식적 요소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주택은 개항을 통해 외래문화가 급속히 유입되었고, 곧 이은 식민지 통치시대로 전통이 단절되었다. 이후의 사회 문화적 역건은 이와 같은 단절을 극복할 기회를 늦추었고, 기능주의 건축이 세계의 주류를 이룸에 따라 주택도 '보편적인 동질의 주택'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한국인의 기본정서에 부합되지 못하였으며 주생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밝혀줄 수 있는 건축정신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에서는 전통 주거개념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전통성의 재구현과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는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이르러서야 피상적인 단계를 벗어나 구체화됨에 따라 서구 지향의 편중된 시각을 벗어나 한국인에게 적합한 주거문화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전통성에 관한 해석과 표현방식에 있어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에게 전통성 표현에 관련하여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는 '전통'의 실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여과하여 현대 주택에 접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대 한국 주택에 전통성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건축가에 의해 지어진 단독주택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방법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틀을 만들어 전통성 표현방법의 유형을 도출해 내하고자 한다.

###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방법을 통하여 이론적 배경을 해석하고, 이 과정에서 전통성 표현방법을 분류하는 분석의 틀을 작성한다. 도출된 분석 틀을 이용하여 선정된 사례 주택의 전통성 표현방법을 내용 분석방법(content analysis)을 통해 파악하였다.

#### (1) 자료수집 및 선정

본 연구는 1990년에서 1998년까지 일반건축 전문지(공간, 건축가, 건축과 환경, 건축문화, 플러스, 현대건축, 이상건축, 건축세계)에 게재된 것으로 국내 건축가가 설계하고 실제로 시공된 주택으로서 전

\* 정회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 부회장,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통성이 표현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전통성은 작가 나름대로 변형 및 추상화하여 표현한 경우가 많으므로 건축 전문지에 건축가 자신이나 비평가에 의해 전통성을 표현하였다고 기술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통성의 표현은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규모가 큰 주택보다는 단독주택에서 그 특성이 확연히 보여지므로 연구대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50사례의 주택이 선정되었으나 자료가 불충분한 사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4사례의 주택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분석방법

선정된 주택의 전통성 표현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건축 전문지에 게재된 배치도, 평면도 및 입면도, 단면도, 엑소노메트릭, 주택 외부 사진, 스케치를 이용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통성 표현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의 특성을 공간구성방법의 특성과 의장적 특성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공간구성방법의 특성은 평면배치와 동선구성방법, 외부공간 구성방법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의장적 특성은 구조적 요소와 장식적 요소로 세분하여 파악하기로 한다.

## 2. 주택에서의 전통성 표현방법 분류 틀

### 2.1. 공간구성방법의 특성

#### (1) 전통주택의 특성

##### ■ 평면배치의 특성

조선시대의 주택은 계급에 따라 상류, 중류, 서민 주택으로 나뉘어지거나 대체로 一, ㄱ, ㄷ, ㄴ자 형태가 기본이다. 각 동을 주택의 규모에 따라 이어 붙이는 등의 조합으로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개화 이후의 주택은 재래 한옥이 변화된 형태인 '개량한옥'이 대표적이다. 개량한옥은 ㄱ자형과 ㄴ자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 동선구성방법의 특성

조선시대 주택에서 공간간의 연결방식인 동선구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이 나타난다. 첫째, 각 공간으로 직접 연결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 주택 외부에 확장되어 설치된 뒷마루를 통하여 이동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각 실 사이에 위치한 대청마루 같은 매개공간을 통하여 동선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

##### ■ 외부공간의 특성

상류주택인 경우에는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많은 식솔들을 거느렸으므로 이들이 거주하는 건물은 채로 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활영역이 구별될 필요성이 있었다. 이로서 주택의 외부공간은 채를 중심으로 한 마당의 단위로 분화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주택의 외부공간은 내부공간으로 연결되는 동선의 역할도 컸지만 휴식처, 옥외작업장, 의식 행사장 등 장소로서의 의미도 중요했다.

개화 이후 주택의 외부공간은 대문간이 따로 있을 정도로 외부에 대해 폐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각 실의 출입을 분배하는 결

절적인 동시에 가사작업공간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주택 내부의 생활이 연장되어 일어나는 공간이다.

#### (2) 현대화 과정의 주택 특성

##### ■ 평면배치의 특성

해방이후 1950년대에서 1960년대의 평면형태는 재래한옥의 ㄱ, ㄴ자형에서 ㄴ자형으로 점차 변형되어 갔다. ㄴ자 형태의 평면은 마루가 현대적 의미의 내부공간으로 옮겨감에 따라 마루의 양쪽으로 안방과 방이 배치되던 홑집구조 형태에서 마루의 뒤편으로 방이 배치되는 겹집구조 형태의 특성을 보인다. 1970년대 이후에는 서구화된 평면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ㄴ자형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이는 민가형식인 ㄱ자형에서 마루를 전면으로 돌출시키고 후면에 방을 하나 부가함으로써 거실 중심의 편리성을 추구한 집중식 평면 구성을 취하고 있다. 1980년대의 평면형태는 거실부분의 돌출이 많아 70년대에 비하여 공간이 더욱 깊어졌다. 또한 현관부분이 내부화 됨에 따라 좁은 ㄱ자 모양이 되었다.

##### ■ 동선구성방법의 특성

1970년대에는 모든 내부 공간이 현관에 의해서만 연결이 된다. 또한 거실이 이전시대보다 규모가 커지고 주택의 중심에 자리하게 됨에 따라 동선이 분배되는 중심적 역할을 한다. 거실을 중심으로 각 공간의 접속이 일어나는 현상은 이전시대의 연결방식과 유사하지만, 1980년대에는 부엌에서 출입할 수 있는 발코니나 다용도실이 새롭게 접속되어 연결이 된다.

##### ■ 외부공간의 특성

1970년대에는 외부공간으로서 성격이 강했던 부엌이 내부화되고 주택 내부의 바닥이 전체적으로 높아짐<sup>1)</sup>에 따라 외부공간과 기능적으로 단절되었다. 1980년대 이후의 외부공간은 기능이 매우 축소되고 진입방식이 다변화됨에 따라 측면과 후면을 모두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서 배치하게 된다. 이로서 사면에 모두 담장을 둘러싸게 되는데, 이 담장은 외부로부터 폐쇄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상징하는 의미만을 지닌다. 담장으로 인해 형성되었던 내부공간의 프라이버시는 내부공간으로 완전히 이동하였다.

### 2.2. 의장적 특성

#### (1) 전통주택의 특성

##### ■ 구조적 요소

전통주택의 지붕은 가구법에 따라 삼량집이면 맛있는 맞배지붕을 사용하고 오량이나 그 이상이면 지붕의 물매가 날렵한 합각지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민 주택의 경우 주로 초가지붕을 사용하였다. 벽의 종류에는 심벽, 내심벽, 외평벽, 방화장 벽 등이 있다. 기단은 건물을 받치기 위해 높게 만든 단으로 빗물로부터 집의 보호 기능 외에 계급을 상징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박춘식, '50년대 이후 단독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p.39.

■ 장식적 요소

전통주택의 장식적 요소는 기둥과 주춧돌, 처마, 쪽마루 및 툇마루, 난간, 창과 문에 제한하여 살펴보았다.

(2) 현대화 과정의 주택 특성

■ 구조적 특성

해방 이후 지붕의 형태는 60년대 건축가의 창작활동이 활발해지고, 서구와의 교류가 활발해진 까닭으로 평지붕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다<sup>2)</sup> 평지붕 외에 연속박공지붕, 모임지붕, 7자 박공지붕, 7자 모임지붕, 우진각 지붕, 합각지붕 등이 보였다. 60년대 외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한 가지는 적색계통의 벽돌이며, 다른 한 가지는 화강석, 몰탈 위 페인팅, 노출 콘크리트 등 여러 가지 흰색 계통의 재료이다.

1970년대 주택의 외관은 완전히 서구화되어 속칭 불란서식, 혹은 스위스식 등의 형태로 불리운다. 지붕의 형태는 70년대 초부터 박공형태로 변화하다가 용마루를 중앙에서 약간 비껴 세우는 화란식 비탈집이 유행하였다. 이 외에 비대칭 박공지붕, 들입(人)자 지붕이 사용되었다. 외벽재료로서 70년대 초반에는 회색 전벽돌과 본타일이 등장하였다.

1980년대 지붕은 형태가 간결화 되었고 지붕재가 완전히 콘크리트조로 바뀌며 물매도 완화된. 모임지붕과 부설지붕형태의 측면 박공지붕이 대부분이며 유럽풍의 목가적 형태를 갖는 맨사드 지붕형태가 새로운 지붕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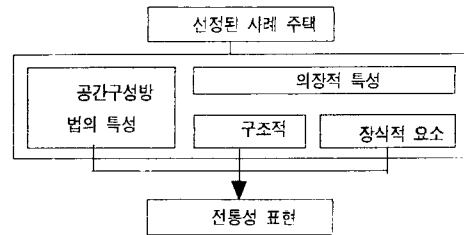
■ 장식적 요소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거실 창호재가 목재에서 알미늄재로 바뀌면서 창문들이 간결화 되었다. 70년대의 창문은 창문 재료의 발달로 거실 창은 면적이 넓어지며 넓은 유리를 고정시키고 창문의 일부만 개폐되는 형태를 사용하였다.<sup>4)</sup> 80년대의 거실창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대형의 전망창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난간은 70년대 주택의 두드러진 장식요소로 사용되다가 80년대에 이르면 단순한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마당이 사적 개념에서 공적 개념으로 바뀌고, 담장은 단지 상징적 의미만 갖게 됨에 따라 높이가 1m정도로 낮아지고 주로 철판을 사용한다.

2.3. 전통성 표현방법의 분류를 위한 틀

주택에서 나타난 전통성 표현방법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위의 문헌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 틀을 체계화하였다.



<그림 1> 전통성 표현방법의 분석 틀

<표 1> 공간구성방법 분석의 틀

구분	전통적	현대적
평면 형태	채의 분화여부 - 물리적인 채의 분화를 시도한 주택	- 한 동에 모든 주택의 기능을 수용한 주택
	평면형태 - 7자, C자, M자	- 굽은 7자, K자, 장방형의 M자
	공간배열 방법 1. 홀집구조 주택 2. 마루를 계획한 주택	1. 겹집구조 주택 2. 거실을 계획한 주택 혹은 LDK 방식의 주택
동선구성방법	1. 분산 출입방식을 사용한 주택 2. 복합기능의 창호를 사용하여 외부로의 출입에 융통성이 보이는 주택	1. 집중 출입방식을 사용한 주택 2. 창과 문의 기능이 확연히 분리되어 동선의 이동은 문을 통해서만 가능한 주택
	외부공간 1. 담장에 의해 외부에 대하여 폐쇄적인 성격을 지니는 주택 2. 대지경계선 가까이로 배치한 주택으로 인해 대지 안쪽으로 집중되는 외부공간을 지닌 주택 3. 내부공간과의 연계가 활발히 일어나고 생활공간의 연장으로서의 외부공간을 계획한 주택 4. 의도적인 외부공간의 분화를 시도한 주택	1. 낮은 담장으로 외부에 대하여 개방적인 성격을 지니는 주택 2.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서 배치함으로써 주택 외부를 감싸는 외부외부공간을 지닌 주택 3. 서구적인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각적인 개방감을 확보하는 주택, 외부공간이 생활공간으로 연계되지 않는 주택 4. 외부공간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택

<표 2> 의장적 특성 - 구조적 요소의 분류기준

구분	전통적	현대적
지붕	형태 - 합각지붕 - 박공지붕 - 우진각지붕..	- 평 슬래브 지붕 - 모임지붕 - 불란서 식 뾰족지붕 - 화란식 비탈지붕 - 들입(人)지붕 - 파리랫을 설치한 지붕
	재료 한식기와, 목재널판	양식기와, 동판쉬트, 타일
벽체부	형태 심벽구조	단순하게 마감처리된 벽면
	재료 흙벽돌, 회벽 및 진흙마감, 목재기둥	시멘트 타일, 벽돌, 화강석, 드라이비트
기단부	- 기단이 있는 주택 - 장대석으로 두른 주택	기단부가 없는 경우

.. 박공지붕과 우진각지붕은 전통주택에서 나타나는 직설적인 형태로 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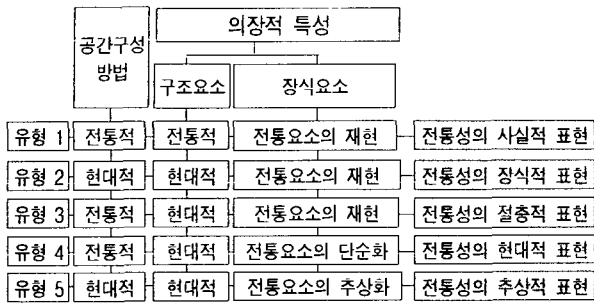
장식적 요소는 단순히 전통적/현대적 표현방식으로 이분화하여 구분하는 데 무리가 따르므로 전통요소의 재현방법, 전통요소의 단순화 방법, 전통요소의 추상화 방법<sup>5)</sup>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3. 현대 주택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방법의 유형분류

1990년대 건축가에 의해 지어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

5) 전통요소의 재현방법 : 전통주거건축의 외형적 양식과 형태의 디테일을 그대로 인용하여 표현하는 방법  
 전통요소의 단순화 방법 : 전통주거건축에 사용되었던 양식들을 단순화 혹은 변형하고 재료를 치환하여 현대적 감각을 제공하면서도 전통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방법  
 전통요소의 추상화 방법 : 전통주거건축에 '내재하는 질서' 혹은 형태의 이미지들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부여하여 추상화 시키는 방법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현대주택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방법의 5가지 유형

유형 1은 공간구성방법에 있어 단층주택으로 계획되고 홑집구조에 수평적인 공간확장방법인 채의 분화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공간구성 특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회벽이나 자연석 등 토속적인 재료를 이용하여 외벽을 디자인하였으며 전통주택에서 보여지는 지붕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전통적 구조요소의 특성을 보였다. 이 외에 킷마루나 처마 장식, 창호문양 등 장식적 요소의 디자인에 있어 전통주택의 요소들을 재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유형 1의 주택들은 모든 요소들이 전통성을 직설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전통성의 사실적 표현'이라 하였다.

유형 2는 공간구성방법에 있어 겹집구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집중출입방식이 이루어지는 현대적인 공간구성 특성을 보여주었다. 외벽은 주로 적벽돌을 이용한 단순한 디자인을 하여 현대적 구조요소의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장식적 요소는 유형 1과 마찬가지로 전통주택의 요소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유형 2의 주택들은 장식요소만이 전통성을 드러내고 다른 요소들은 현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전통성이 장식적인 방법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통성의 장식적 표현'이라 하였다.

유형 3은 전통주택의 공간구성방법을 변형시킨 홑집구조 형식과 채의 분화가 보여지나 전통적인 특성이 강한 공간구성방법을 보여주었다. 구조적 요소는 노출 콘크리트, 드라이비트, 시멘트 몰탈 등 현대적인 재료에 기하학적인 입방체로 구성함으로써 현대적인 특성이 강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창호, 킷마루와 같은 장식적 요소는 전통주택의 요소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부가함으로써 구조적인 요소와 강한 대비를 이루었다. 유형 3의 주택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요소와 장식요소가 각기 현대적 특성과 전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절충적으로 함께 사용되었으므로 '전통성의 절충적 표현'이라 하였다.

유형 4는 공간구성방법에 있어 홑집구조와 채를 분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유형 3과 마찬가지로 축을 틀어 배치하고 각각의 분리된 채를 브리지로 연결하는 등 현대적인 변형이 가미되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집중출입방식과 분산출입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나 유리벽으로 이루어진 브리지를 통한 공간의 체험에서 전통주택 공간구성에서 느끼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였다. 구조적 요소는 노출콘크리트, 드라이비트 등 현대적 재료를 이용해 단순하게 디자인하였다. 장식적 요소는 격자 프레임 구조물,

변형된 킷마루 등 전통적 요소를 단순화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유형 4의 주택은 특히 공간구성방법을 통해 전통성을 표현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며,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현대화 된 삶과 접목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더불어 장식적 요소가 전통성을 단순화하여 현대적인 구조적 요소와 조화를 이루며 전통적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전통성의 현대적 표현'이라 하였다.

유형 5는 공간구성방법에 있어서 전통적 공간구성방법을 작가가 여과하여 표현하였으나 형태적으로 파악할 때 대부분 현대적인 공간구성특성을 보였다. 구조적 요소 또한 현대적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며, 장식적 요소는 전통적 요소를 추상화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유형 5의 주택들은 전통성을 추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전통성이 즉각적으로 인지되지 않는기 때문에 '전통성의 추상적 표현'이라 하였다.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주택의 사례수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유형별 사례 주택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계
사례수	5	6	6	17	10	44

#### 4. 결론

1990년대 주택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방법은 전통성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유형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1990년대 주택은 전통성을 표현함에 있어 옛 것에 집착하여 구체화된 형태로 표현하기보다는 현재라는 시점을 고려하여 한국인의 주택에 대한 감성을 단순화하거나 추상화하여 형태로 구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주택에서 전통성을 표현하기 위해 공간구성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간구성방법을 통해 전통성을 표현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바로 인지되지 못하고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킷마루나 처마의 형태처럼 구체화되고 정형화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성격을 지닌 마당, 내·외부의 완충공간, 분산출입방식과 같이 건축 언어로 전화하기가 용이하며 대지의 상황에 따라 작가 나름대로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으로 파악된다.

전통요소들을 단순화하거나 추상화하는 것은 새로운 전통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라 여겨지나, 대중들에게 전통성의 의미를 전달하는 능력이 다소 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단순화와 추상화의 과정에 대중들의 공간대를 얻을 수 있는 형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 참고문헌

1. 주남철, 조선시대 주택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6
2. 김광연,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88
3. 박영순 외,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8
4. 안영배, 한국 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재, 1978
5. 주남철, 이조말부터 1945년까지의 한식주택의 변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월호, 14권 38호, 1970
6. 박언곤, 한국건축사강론, 문운당, 1998